KCCI 브리프_ESG_제59호

대한상공회의소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 **전문가 기고**
  한국형 자연자본 공시 시대
  기후를 넘어 '자연 리스크 경영'으로
- **ESG 주요 현안**
  자연자본 공시(TNFD) 가이드라인과 기업입지 리스크
  지구의 날, 2026년 한국형 적색목록(K-RLE) 도입의 의미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 **ESG 통계 지표**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2026 APR

전문가 기고

한국형 자연자본 공시 시대

기후를 넘어 '자연 리스크 경영'으로

김명서
법무법인(유) 세종 전문위원

기후공시가 기업 경영의 핵심 보고 기준으로 자리 잡은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의 시선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연자본 공시로 확장되고 있다. 자연자본 공시는 더 이상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선언적 담론에 머물지 않는다. 공급망 안정성, 원재료 조달, 사업 인허가, 기업 평판, 자본조달 비용 등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직결되는 핵심 경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업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의존도와 영향, 그리고 이에 기반한 위험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식별·평가·관리하고 공시하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특히 TNFD는 자연 관련 리스크를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LEAP(Locate–Evaluate–Assess–Prepare) 접근법을 핵심 방법론으로 제시한다. 이 접근법은 자연 리스크를 추상적 개념이 아닌, 위치 기반 데이터와 재무 영향으로 연결된 구체적 경영 변수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기존 기후공시 대비 한층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요구한다.

<TNFD 공시 기준의 토대가 되는 LEAP 접근방식>

한국형 자연자본 공시 논의의 본격화

최근 국내에서도 자연자본 공시에 대한 논의는 정책적 검토 단계를 넘어 점차 제도화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자연자본 공시 지침 마련과 더불어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에 필요한 데이터 지원 체계 구축 등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 기준을 단순히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 산업 구조와 데이터 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공시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연자본 공시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자연자본은 생태계, 생물다양성, 자연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산 및 서비스 전체를 의미하지만, 기업 관점에서는 원재료 확보, 생산 지속성, 사업 인허가 및 지역사회 수용성과 직결되는 핵심 경영 인프라다. 자연 훼손은 공급망 차질, 생산 중단, 규제 리스크, 소송,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자본조달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 기고

한국형 자연자본 공시 시대

기후를 넘어 '자연 리스크 경영'으로

글로벌 공시 기준의 자연자본 공시로 확장

국제적으로도 자연 관련 공시 논의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ISSB(IFRS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IFRS S1·S2 기준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의 글로벌 기준이 정립되는 가운데, 자연 관련 정보 공시 역시 이러한 프레임워크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위치 기반 정보와 목표 이행 체계가 강조되면서, 향후 자연자본 공시는 정량적 지표와 위치 기반 데이터 중심의 공시 체계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점은 자연자본 공시가 기후공시의 연장선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즉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기보다, 기존 TCFD 및 IFRS S2 기반 대응 체계에 자연 요소를 통합하는 접근이 현실적 방안이다. 이는 대응 비용을 줄이면서도 공시 일관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자연자본 공시 시대의 기업 대응 방향

자연자본 공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특히 자연 리스크는 사업장, 원재료 산지, 수자원 의존 지역 등 '위치 기반'으로 식별·관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 기후공시 대응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공시 체계 간 정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산업별 핵심 영향 영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자본 공시는 데이터 기반 대응이 핵심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연 관련 데이터는 범위가 넓고 외부 데이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 내부 사업장 데이터, 공급망 데이터, 외부 플랫폼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정부가 자연자본 공시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지원하고 한국형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결국 자연자본 공시의 핵심은 보고서 작성 그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체계 안에 자연 리스크 관리 구조를 내재화하는 데 있다. 기업이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이 재무와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어떤 지표와 목표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026년은 의무화의 본격 시행 시점이라기보다, 자연자본 공시를 위한 파일럿 진단과 우선 위치 식별, 데이터 기반 대응 체계 구축 등 역량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전환기다.

ESG 주요 현안

자연자본 공시(TNFD) 가이드라인과 기업입지 리스크

지구의 날, 2026년 한국형 적색목록 (K-RLE) 도입의 의미

1. 지구의 날 이후, '공간'을 묻다

2026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올해의 질문은 이전과는 결이 다르다. 단순히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가"를 묻기보다는 "우리의 사업은 어떤 자연 위에서, 어떤 생태계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묻기 시작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자연연계재무공시(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가 있다. TNFD는 기업 활동이 자연자본에 의존하는 방식과 동시에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고의 확장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전제 조건 자체를 재정의하는 시도다.

특히 2026년 중 도입 예정인 한국형 생태계 적색목록(K-RLE)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생태계 적색목록(Red List of Ecosystem)이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는 야생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멸종 위험이 높은 생물을 선정하고 이들 종의 분포 및 서식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66년 최초로 이들의 정보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하였는데 그 표지가 붉은색이어서 적색자료집(Red Data Book)이라고 부르며 여기에 실린 종의 목록을 적색목록(Red List)이라고 한다. 2026년 한국형 적색목록은 생물다양성의 감소위험이 높은 생태계를 파악하고 식별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으로, 효과적인 생태계 관리 및 보전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생태계 단위의 붕괴 위험을 정량화하는 이 체계는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적 취약성을 가시화함으로써, 자연 리스크를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경영 변수로 전환시키고 있다.

자연자본 공시(TNFD) 가이드라인과 기업입지 리스크

지구의 날, 2026년 한국형 적색목록 (K-RLE) 도입의 의미

2. 자연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경영 변수'

오랫동안 기업은 자연을 '외부 환경'으로 간주해 왔다. 자연은 보호의 대상이거나 규제의 대상이었지만,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 변수로 직접 다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TNFD는 이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기업 활동은 본질적으로 자연에 의존한다. 반도체 산업은 초순수 없이는 작동할 수 없고, 식품 산업은 안정적인 농업 생태계에 기반하며, 건설 산업은 토지 이용 변화와 직결된다. 동시에 이러한 활동은 자연에 영향을 미친다. 산림 훼손, 수질 오염, 생물다양성 감소는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경영 리스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은 더 이상 '외부 변수'가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내재적 자산이자 리스크 요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TNFD는 바로 이 점을 기업이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3. 입지 리스크: ESG의 새로운 기준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프레임워크의 핵심 구조>

TNFD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입지 리스크(Location Risk)'다. 이는 자연 리스크가 산업별로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동일한 사업이라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리스크의 성격과 크기는 전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한 공장과 물 부족 지역에 위치한 공장은 동일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전혀 다른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진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규제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를 동시에 안게 된다.

자연자본 공시(TNFD) 가이드라인과 기업입지 리스크

지구의 날, 2026년 한국형 적색목록 (K-RLE) 도입의 의미

이처럼 TNFD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생산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생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투자, 금융, 규제, 공급망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K-RLE의 도입은 이러한 입지 리스크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기업 전략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4. LEAP 프레임워크: 자연 리스크를 경영에 연결.

TNFD는 기업이 자연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LEAP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분석 도구가 아니라, 자연과 기업 활동 간의 관계를 경영 전략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첫 단계인 Locate는 기업의 사업장과 공급망이 자연 리스크에 노출된 지역을 식별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단순한 위치 확인을 넘어, 고위험 지역을 선별하는 전략적 판단을 포함한다.
두 번째 단계인 Evaluate 단계에서는 기업이 어떤 자연 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자연과 기업의 관계를 정량화하는 과정이다. 다음으로 Assess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존성과 영향이 실제 재무 리스크와 기회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평가한다. 자연은 이 단계에서 비로소 '재무적 언어'로 번역된다.
마지막으로 Prepare 단계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 체계와 경영 의사결정에 통합한다.
이 네 단계는 하나의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기업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사고 체계다.

<LEAP 구조>

단계	내용	입지 리스크 관점
Locate	자연과의 접점 식별	고위험 지역 파악
Evaluate	의존성과 영향 분석	생태계 영향 평가
Assess	리스크·기회 분석	재무 영향 분석
Prepare	대응 전략 수립	입지 전략 재설계

자연자본 공시(TNFD) 가이드라인과 기업입지 리스크

지구의 날, 2026년 한국형 적색목록 (K-RLE) 도입의 의미

5. 한국형 생태계 적색목록(K-RLE) 도입의 의미

한국형 생태계 적색목록(K-RLE)의 도입은 TNFD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 이는 자연 리스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하는 첫 시도이기 때문이다. K-RLE는 단순한 환경 지표를 넘어, 기업 활동의 입지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지역이 고위험 생태계로 분류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투자나 개발은 규제뿐 아니라 금융과 시장 평가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K-RLE는 자연 리스크를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안으로 편입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형 K-RLE 도입이 구체적으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기업활동 전후 생태계 영향 분석을 위해 RLE 평가기준(생태계 변화, 생물종 분포 변화 등)에 기반한 TNFD 평가 가이드라인을 2026년까지 제공할 계획이며, 기업의 자연자본 정보공시체계에서 생태계 적색목록을 주요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지자체 개발사업 시 생태계 적색목록 평가 결과에 기반한 생물다양성 보전방법을 시범 적용하고, 기업 활동에도 자율적 적용을 2026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즉, K-RLE는 단순한 환경 연구 도구가 아니라 TNFD·공시·투자·규제와 직접 연결되는 기업 실무 이슈이다.

1) 공시 (Disclosure)

K-RLE가 자연자본 정보공시의 핵심 지표로 채택될 예정이다. TNFD 2023년 최종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생태계 상태를 정량화할 지표로 RLE를 지목했고, 국내도 이에 연동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인근 생태계 유형의 RLE 등급(붕괴위기·위기·취약·준위협·최소관심 등)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나 ESG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특히 EU CSRD/ESRS E4(생물다양성) 기준으로 보고해야 하는 수출 의존 기업에게는 국내 K-RLE 데이터가 직접적인 보고 자료가 된다.

2) 투자 (Investment), 금융(Finance)

K-Taxonomy(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6대 환경목표 중 하나가 '생물다양성 보전'이며, 생태계 적색목록은 이 목표의 핵심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곧 녹색채권·녹색펀드·ESG 투자상품의 적격성 판단에 K-RLE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인 것이다. 특정 지역의 생태계가 K-RLE 상 '위기(EN)' 이상으로 분류된 곳에서 운영되는 기업은 투자 배제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생태계 복원 활동을 하는 기업은 녹색금융 조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3) 규제 (Regulation)

가장 현실적이고 강한 압력이 여기서 나온다. 정부·지자체 개발사업에 생태계 적색목록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생물다양성 보전방법이 시범 적용되며, 기존 '생태계 피해 최소화' 방식에서 '조림, 대체서식지 조성 등 생물다양성 총량 보전' 방식으로 전환되게 된다. 즉 중기적으로는 공장 신·증설, 물류센터·산업단지 개발 등 인허가 과정에서 K-RLE 등급이 높은(위험한) 생태계 인접 지역은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나 생물다양성 보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자연자본 공시(TNFD) 가이드라인과 기업입지 리스크

지구의 날, 2026년 한국형 적색목록 (K-RLE) 도입의 의미

6. 기업 전략의 재구성: "위치 기반 경영"으로

이러한 변화는 기업 전략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요구한다. 기존의 ESG 전략이 주로 배출량 감축이나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사업장의 위치와 공급망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기업은 사업장과 공급망의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자연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투자와 운영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생물다양성, 수자원, 토지 이용 등 자연자본 관련 지표를 KPI로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응을 개별 활동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시 체계와 통합하는 것이다. TNFD는 TCFD, GRI, ISSB와의 연계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7. 이제 '공간의 문제'로 떠오른 기업의 ESG 경영

기후 대응이 '넷제로'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면, 자연자본 대응은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목표는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나 효율성 향상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이제 기업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공간은 지속 가능한가. TNFD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이며, 동시에 기업이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의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경영 언어다.

결국 ESG의 미래는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얼마나 줄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존재하는가'의 문제다.

참고문헌 및 출처

TNFD Final Recommendations (2023)
ISSB Agenda Consultation (2024)
WWF Nature Risk Reports
환경부, 한국형 생태계 적색목록(K-RLE) 도입 계획 (2026 예정)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5년 7월호, ESG 주요 현안, "기후를 넘어 자연으로"

국내외 주요 ESG 뉴스

E 환 경

기후 변화 대응 | 녹색금융 | 친환경 기술 혁신

-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5월로 재조정… 규제 수위 상향 전망
  한국경제 | 2026-04-27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702161
- KSSB 공시 대응, 데이터·시스템 기반 통합 운영체계 구축이 핵심
  이데일리 | 2026-04-21 |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411206645418416
- 공급망 탄소관리 지원 확대, ESG 인력 양성 본격화… 석유화학·철강 스코프3 기준 제공
  환경일보 | 2026-04-28 |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2414
-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시동, 제품 탄소·자원 기준 의무화 추진… 연내 포럼 거쳐 제도화 본격화
  환경일보 | 2026-04-28 |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2409
- 제품 설계부터 규제…'에코디자인 시대' 열린다
  수소신문 | 2026-04-28 | https://v.daum.net/v/20260428161850369
- 환경성 광고 신뢰 높인다, 기후부·공정위 공동교육 실시… 연내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일보 | 2026-04-28 |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2412
-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7) EU 그린워싱 관련 규제
  법률신문 | 2026-04-27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08

S 사 회

산업 안전 | 노동권 | 동반 성장 | 소비자 보호

- ESG 가이드라인 "도움된다" 62.5%… 현장적용은 "여전히 어렵다"
  이넷뉴스 | 2026.04.27 | https://www.en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04
- 인권위, "화성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분사 사건' 심각한 인권 침해"…"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경향신문 | 2026-04-09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91645001
- 국가인권교육원, 용인 기흥 개원…전국 인권교육 거점 도약 기대
  경기평화신문 | 2026-04-29 | https://www.ggpyeonghwa.com/574768
- 이주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 | 2026-04-09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217
- 다현로앤컨설팅노무법인, 업계 최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선도
  FN투데이 | 2026-04-29 |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363
- 한국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Human Rights Watch | 2026-04-22 | https://www.hrw.org/ko/news/2026/04/22/south-korea-co-sponsors-un-rights-resolution-on-north-korea
- 삼성화재, DJSI 월드지수 2년 연속 편입…국내 최고 수준 ESG경영 입증
  전자신문 | 2026-04-29 | https://www.etnews.com/20260429000032

G 지배구조

투명 경영 | 주주 가치 | 글로벌 규제 대응 | 공정거래

- 자사주 소각 99사로 늘었다…밸류업 공시도 590사
  전자신문 | 2026-04-07 | https://www.etnews.com/20260407000350
- 지배구조 개선안 내달로 연기… 국민연금 위한 '5%·10%룰' 완화 안한다
  머니투데이 | 2026-04-23 | https://www.mt.co.kr/finance/2026/04/23/2026042219120429733
- 한국ESG기준원(KCGS), 2026년도 평가대상기업 발표
  한국ESG기준원 | 2026-04-29 | https://www.cgs.or.kr/news/press_view.jsp?no=237&pp=6&skey=&svalue=
- 거래소, 지배구조 공시 지역설명회…코스피 전 상장사 확대 지원
  서울경제 | 2026-04-27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37620
- 글로벌 ESG '지배구조'에 무게추…韓 기업 대응 시급
  네이트 뉴스 | 2026-04-28 | https://news.nate.com/view/20260428n03411
-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코스피 6천 시대, 지배구조 의무공시 전면 확대"
  연합인포맥스 | 2026-04-14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9377

ESG 통계 지표

2026년 4월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 개)

구 분	'25.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6. 3월
녹색채권	310	314	317	328	328	326	319	318
사회적채권	1,751	1,769	1,763	1,772	1,799	1,811	1,815	1,809
지속가능채권	221	217	215	208	202	199	191	185

자료: KRX ESG채권 정보플랫폼-통계-상장현황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 천억 원)

구 분	'25.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6. 3월
녹색채권	264	267	269	282	285	282	272	274
사회적채권	2,110	2,108	2,077	2,085	2,102	2,108	2,104	2,089
지속가능채권	158	158	159	159	151	149	144	138

자료: KRX ESG채권 정보플랫폼-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5.12.31)

(단위 :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	38	78	131	161	204	226	-

자료: KRX ESG 포털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5.12.31)

(단위 :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지배구조보고서	213	224	231	355	380	530	549	37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5.12)

* CF100 참여 기업 수: 177개 ('25.9)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국내	-	6	14	27	36	36	36	36
글로벌	204	269	335	393	426	439	446	443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최영준 연구원 | E. cyj@korcham.net
*지속가능경영원

담당자 및 문의처